독일에서 펼쳐진 불자들의 '한국사랑'

금강경독송회, 獨 드레스덴서 대장경 홍보

활자축제 참가, 강연 진행
금속활자 등 인쇄문화 소개
獨 "대장경은 놀라운 결과물"


드레스덴서 금강경독송회의 홍보영상을 보는 독일 인쇄협회 관계자들과 김정자 독일지부장(사진왼쪽 첫번째).

한반도 통일 선언이 이뤄진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국불자들의 불교문화 홍보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금강경독송회 독일지부(지부장 김정자)는 6월 18일 독일 드레스덴 활자축제에서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대장경 및 한국 인쇄문화를 알렸다.

독일 작센주 주도 드레스덴은 독일 남부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는 도시다. 금강경독송회는 드레스덴대 슈마흐 가블러 교수 초청으로 인쇄문화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활자축제'에 참가했다.

활제 축제는 18세기 설립된 오피친 하크 드루구린 인쇄사(Offizin Haag-Drugulin Dresden)가 주최한 대회로 세계 인쇄매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대회로 알려져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매일 오전 3시부터 금강경을 7독하고 드레스덴 대학과 고등학교, 박물관 등에서 대장경과 한국인쇄문화를 소개했다.

특히 드레스덴대 강연에서는 강사로 김정자 독일지부장이 나섰으며 강연에는 40여 명의 독일 인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 지부장은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에서 영국 세필드 대학 존 옵션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독일인들에게 대장경과 금속활자를 소개했다.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에서 존 옵션 교수는 "구텐베르크는 한국 금속활자를 모델로 42행 성서를 찍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부장은 "많은 분들이 고려시대 몽고와의 전쟁 중에도 8만장이 넘는 대장경을 만들 수 있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세종 시기 이뤄진 경자자와 갑인자 등 활자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금강경독송회 회원 김용희 씨는 "세종 16년 동안에 인쇄 속도가 5배 높아졌다는 것과 고령자를 위한 큰 활자 또한 당시에 제작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이가 많을 것"이라며 "일본이 임진왜란 후 조선에서 훔쳐간 20만개 활자로 첫 인쇄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자 비치된 책자 70여 권을 모두 가져가기도 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금강경독송회 측은 "금속활자 발명으로 세계문화에 혁신을 가져온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 출판으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직지' 등 우리나라의 앞선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경독송회는 2005년부터 전 세계에서 한국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위인과 문화유산에 대한 책 8종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제작해 총 75만권을 인쇄, 전 세계 도서관과 대학 등에 배포하고 있다. 도 석굴암, 팔만대장경, 고려불화, 한글 등의 문화유산 속에 담긴 정신을 알리는 강연을 1만회 넘게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전국서 마음 수련회 연다

법문 퍼즐·천연염색 체험 등 다채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수련회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7월과 8월 안양본원을 비롯한 전국 각 지원에서 다양한 수련회를 개최한다.

먼저 안양본원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이상한 나라의 위기'에서는 참가학생들이 스스로 오염된 마음과 상황이 왜 생겨났는지 원인을 파악해보고 무한능력 에너지를 찾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본원 측은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를 위한 마음을 내어보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명선원에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지원학생 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에서는 참가 학생들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다양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이 각자의 이름표에 '착한, 친절한' 등을 새기고, '포켓몬 고'와 같이 지도스님과 선생님을 찾아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지도자들은 생활습관 돌아보기를 비롯해 생활과 마음 수행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참가 학생들에게 던진다.

광주지원이 진행하는 '마음으로 그린 푸른별' 프로그램은 참가어린이들이 환경보호의식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주 천연염색체험을 비롯해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 산림자원연구소 숲체험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수련회 기간 참가 학생들이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보호운동도 펼치게 된다.

청주지원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는 '내 마음속 보물 주인공' 어린이회 수련회에서는 법문퍼즐을 활용한 보물찾기가 진행된다. 법문퍼즐을 아이들이 풀며 최종 목적지에서는 내 안의 보물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오후에는 숲속체험을 통해 나무와 함께 대화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지원명	분류	주제	기간	장소
안양본원	어린이회	'나에게로 한걸음 더'	7월 28일~30일	광명선원
	학생회	이상한 나라의 위기	7월 28일~30일	가평 밀키웨이펜션
광명선원	어린이회	산은 물을 안고 온갖 중생 다 안고서	8월 11일~13일 *어린이·학생회 연합	지리산
	학생회			
부산지원	어린이회	마음놀이터	7월 28일~30일	부산지원
	학생회	마음ON!	8월 11일~13일	전남 장흥
광주지원	어린이회	마음으로 그린 푸른별	7월 29일~30일	광주지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울산지원	어린이회	마음꽃 활짝	7월 29일~30일	울산지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대구지원	어린이회	미정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진주지원	어린이회	내 마음의 전화기	7월 29일~30일	진주지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공주지원	어린이회	미정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포항지원	어린이회	모두가 주인공	7월 22일~23일	포항 봉산체험마을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청주지원	어린이회	내 마음속 보물 '주인공'	7월 22일~23일	광명선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통영지원	어린이회	어린이·청년회 연합캠프	7월 29일~30일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목포지원	어린이회	내 마음의 전화기	7월 29일~30일	진주지원
	학생회	지원학생연합수련회 '어둡니? 불을 켜!'	8월 4일~6일	광명선원, 서울

*7월 13일 현재 일정 미정인 각 지원은 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馬다르리듯, 心魔도 다스려요"

한국마사회 불자들, 7월 10일 불자회 '마법회' 첫 조직

한국마사회 불자들이 마사회 설립 68년만에 불자회를 조직했다. 한국마사회 불자회 회원들은 7월 10일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지도법사 성행 스님을 비롯해 어영택 마사회 불자회 대표, 정병국 마사회 상임감사(前새누리당 불교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사회 불자들은 "마사회 삶의 터전에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결코 물러섬이 없는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룰 것"이라고 발원했다.

이어진 법회에서는 마사회 불자회 명칭을 '마법회'로 칭하는 것과 법회 후 매달 정기법회를 여는 한편, 사찰예절을 비롯하여 기초교리부터 체계적으로 익히는 자리를 청계사에서 갖기로 했다. 또 대표로 어영택 대표가 선출됐다.

어영택 대표는 "1949년 설립 이후 불자들의 구심체가 없었다. 이번 마법회 출범을 계기로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행 스님의 '개경게' 염송을 시작으로 '참회진언' 합송이 이어졌다. 지도 법사 성행 스님은 "108번뇌와 8만 가지 고뇌,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 말씀을 살피는 것"이라며 "화두를 갖고 하루 단 몇 분 만이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자. 꾸준히 모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서 '택견·사경' 배우며 무더위 탈출!

여름 템플스테이 특별 프로그램 마련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15일~8월 27일 매주 주말 열리는 여름 템플스테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통 감지에 금니 사경 및 택견 체험을 마련했다.

먼저 금니 사경 체험은 〈화엄경〉과 〈법화경〉 전체 사경 불사를 원만 회향한 지헌 박외수 선생의 지도하에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전통감지 위에 금니·은니로 부처님 경전을 한 구절 한 구절 써보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사자소학〉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내용과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 체본도 준비됐다.

또한 무형문화재 택견 국가 이수자와 함께 하는 택견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봉은사는 "무더위로 지친 참가자들의 심신을 강화하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시간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밖에 시원한 녹차·발효차·꽃차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02)512-4826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성북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7월 11일 지역 동행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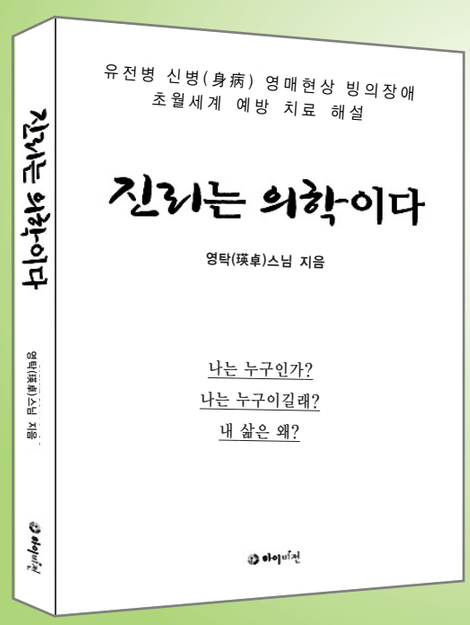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7월 11일 복지관 5층 강당에서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함께한 10년, 지역과 더불어 성장할 우리'를 개최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복지관'이라는 비전에 맞춰 7월 3일부터 1주일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지역사회 떡나눔'을 진행한 바 있다.

기념식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10주년 동영상 상영, 직원 감사 인사, 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젼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당신의 영혼에 연인처럼 다가오는 책

영혼의 연금술 치유예술을 만나다

저자_ Healing artist TARA

詩, 통찰, 치유, 명상, 수공예와
순수예술이 cross over 된 예술,
분화되기 이전의 통합예술을 꿈꾸며
20년간 준비 해 온 작가,
Healing artist TARA의 작품에세이.

작품 한 점 한 점, 글 하나 하나가
모두 영감과 명상으로 완성된,
작가의 혼이 담긴 책.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
힐링 에너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200×240 | 206쪽 | 정가 19,000원 |
그린타라북스 ☎ 041-533-2020

'숲'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지어드리기 위해 이 책을 지구 어머니에게 바칩니다.